

아시아교육연구 20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4, pp. 1039-1063.

<https://doi.org/10.15753/aje.2019.12.20.4.1039>

# 대학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분석\*

최병섭(崔秉燮)\*\*

이지연(李之漣)\*\*\*

##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우울의 원인으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관이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제시하여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52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모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물질주의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며,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가 사회비교에 영향을 미치며, 외모만족도를 이중매개 하여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의 우울에 있어 물질주의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렸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

\* 이 논문은 최병섭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

\*\*\* 교신저자,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교수

## 1.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생 세대는 한국 경제적 발전의 최대 수혜자이지만, 심리적 만족이나 행복은 이전 세대보다 못하다(박정운, 2009; 임태순, 임병진, 2012; 최무진, 2009).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울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이와 함께 2018년 대학생 2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상태와 학교적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중 43.2%가 우울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14.3%는 자살위기의 잠재 위험군 이상으로 나타난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오혜영, 2018). 이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적 심리적 위기가 심각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에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추후 사회생활 적응과 가정생활에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과(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2012; 이선혜, 2002), 대학생 시기의 우울이 자살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김정호, 2015; 김지삼, 2014; 천숙희, 2012),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연구와 개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기위해 다양한 이론에서 증상을 해석하려 노력 해 왔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개인마다 우울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차 변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turman, Mongrain, & Kohn, 2006). 특히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우울과 관련이 있을 때, 우울 취약성이 높아진다는 점(Just, Abramson, & Alloy, 2001)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물질주의를 제시하여 우울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물질주의란 다른 가치들에 비해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의 소유나 획득을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뜻한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물질주의를 연구한 대표 학자인 Richins와 Dawson(1992)은 물질주의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centrality)이 되는 것이다. 즉, 획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물질의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둘째,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통한 행복추구(happiness)이다. 이는 행복의 원천으로 물질의 획득이나 획득과정이 작용하고, 이를 통해서만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성공 여부를 물질의 소유로 판단하는 성향(success)이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국인의 과도한 물질주의 가치관이 부정정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Diener, Suh, Kim, Biswas 와 Tay(2010)의 연구에서 한국, 미국, 일본, 덴마크, 짐바브웨 총 5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비교분석 하였고, 이 결과 한국인의 행복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의 과도한 물질주의 가치관 때문이라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259편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결과, 나이,

인종, 국적, 성별 등에 상관없이 물질주의는 부적 심리적 안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et al., 2014). 이처럼 삶에서 물질적 가치를 정신적 가치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면, 여러 심리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며(송인숙, 1991), 특히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rroughs & Rindfleisch, 2002; Kasser & Ahuvia, 1993).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활력감은 떨어지고 더 높은 우울을 보였으며(홍기원, 김연우, 2015),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가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부작용을 예측했다(김유나, 2015). 또한 물질주의 가치를 줄인 사람은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 증상이 완화되고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연구결과(Kasser, Rosenblum, Sameroff, Deci, Niemiec, Ryan, & Hawks, 2014)를 미루어 볼 때, 우울을 나타내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로 물질주의를 제시 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달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 드라마 등에 노출되며 끊임없이 물질주의 가치를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주의는 돈이나 물질의 가치 뿐 아니라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함께 강조하여 보게 된다(Felix & Garza, 2012). 이와 함께 Dittmar외(2014)가 연구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메타분석 한 연구에서도, 물질주의는 단순히 돈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만이 아닌, 외적인 이미지와 함께 연구되어야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에 물질주의와 함께 우울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변인으로 외모주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는 TV에서 제시되는 모델이나 연예인을 볼 때, 그들이 입은 값비싼 옷이나 물품과 화려한 장신구와 함께 그들의 완벽한 외모를 함께 접하게 된다. 문화영향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부유한 삶과 완벽한 외모를 동시에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돈과 외모의 가치를 연합하여 학습하게 된다(Dittmar, 2009). 이처럼 현대사회에 발달된 매체를 통해, 부유한 물질적 가치와 항상 함께 제시되는 개념이 바로 외모 관련 가치이기에, 물질주의 외모주의를 함께 탐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모주의는 외모도구주의, 외모지상주의 등으로 불리는 외모중시의 가치관으로써, 외모가 사회적으로 강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성취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고 믿으며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이미숙, 2013). 현대사회 대학생들의 외모주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최근 구인구직포탈 ‘알바몬’이 20대 78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95.5%가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데 동의 한다고 답했다(아주경제, 2016.1.12). 또한, 많은 20대가 취업, 비즈니스, 결혼 등을 위해 외모를 가꾸고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순, 박미란, 2014). 이러한 외모주의는 단순히 외모적 가치추구만이 아니라, 외모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나의 성공, 또는 행복은 외모에 달렸다는 외모 만능적 신념을 갖게 하며(Fredrickson & Roberts, 1997), 외모 중심적 태도는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Froh, Emmons, Card, Bono, & Wilson, 201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외모주의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비교가 더욱 빈번히 비교하게 될 것을 추론 해 볼 수 있는데, 구재선과 서은국(2015)이 미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불행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미국 대학생보다 한국 대학생이 상대적 외적 가치 추구와, 이로 인한 사회비교 때문에 상대적 불행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같은 외적 가치 추구가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 우울을 유발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물질, 학력, 외모와 같이 외적조건들은 서열평가가 일어나기 쉬워 비교를 유발하기가 용이해 지는데(Lyubomirsky & Ross, 1997), 특히 개인은 자신과 관련이 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사회비교를 가장 많이 하게 된다(Festinger, 1954). 사회비교는 타인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Festinger, 1954), 특히 물질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 추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Rahtz, Sirgy, & Meadow, 1988; Richins, et al., 1992).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과 비교하려는 비교 대상에 따라, 상향비교와 하향비교를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Festinger, 1954),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도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향비교를 하게 되면,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비교를 하여, 부정정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Taylor & Shelley, 1993), 무능감이나 실망감, 낮은 행복감 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며(장은영, 한덕웅, 2004; Aliche, Loschiavo, Zerbst, & Zhang, 1997; Marsh & Parker, 1984; Morse & Gergen, 1970; Wheeler, Martun, & Suls, 1997), 우울하게 만들기도 한다(Kulik & Gump, 1997). 반면, 하향비교는 타인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기에, 자신과 열등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Wills, 1981), 긍정정서를 증가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게 된다(Amoroso & Walters, 1969; Hakmiller, 1996). 이렇게 개인은 사회비교를 할 때, 비교를 행하는 자신의 의도와 대상이 반영되어 사회비교를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비교 후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지는 결과를 보인다(정지민, 2017; Amoroso et al., 1969). 선행연구에 의하면 물질과 같은 외적 가치 추구가 높을수록 사회비교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지만(Lyubomirsky et al., 1997), 사회비교이론을 토대로 볼 때, 사회비교가 꼭 일관되게 우울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에(Festinger, 1954), 사회비교 과정에서 다른 심리적 기제가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사회비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개인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Fallon & Rozin, 1985),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Kostanski & Gullone, 1998). 즉, 사회비교를 하게 될수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낮은 외모만족도를 나타내게 된다(Fardouly & Vartanian, 2015; Hendrickse, Arpan, Clayton, & Ridgway, 2017), 이에 물질주의와 외모주의가 우울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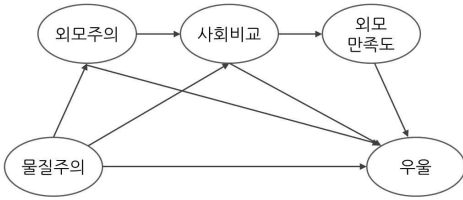
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비교를 통해 외모만족도를 낮추어 우울을 유발할 것을 가정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 부정적으로 인식된 외모만족도는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용민, 정상훈, 2011), 특히 낮은 외모만족도는 우울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을 작용하게 된다(Colunga-rodríguez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낮은 외모만족도는 우울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어(김경아, 2003; 김정혜, 박원모, 권선방, 2005; 남궁정은, 2012), 외모만족도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인에게 팽배한 물질주의는 여러 부정적 정서를 예측하기에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성이 두드러진 변인이지만, 주로 소비자학이나 언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심리적 변인과의 연구는 적다. 특히 물질주의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탓에 소비의 행태가 바뀌며 우리나라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가치관이기에, 이러한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유발하는 한 가지 변수로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함께 제시하여 물질주의가 우울을 유발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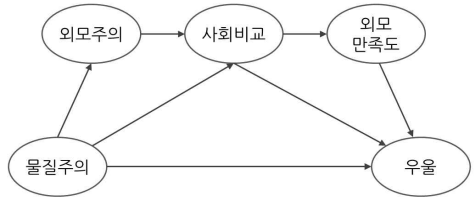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포함한 4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우울을 직접적으로 야기하기도 하며,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주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남들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의 부정적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우울을 나타낼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지닌 것만으로도 타인과 비교를 불러 우울을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가정을 토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로를 추가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 경쟁모형2, 경쟁모형3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가치추구가 부정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Kasser & Ryan, 1993)에 따라 외모주의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예상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 외모주의와 우울간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나 상관이 낮고, 매개변인을 통한 경로만 유의하다는 선행연구결과(이승연, 박영숙, 2008)가 있어, 반복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모주의와 우울간의 관계만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1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비교와 관련하여, 외적 가치와 관련된 사회비교가 부정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구재선 외, 2015)를 토대로 사회비교와 우울 간의 경로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에서 추가로 제시하였는데,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다르다는 연구결과(정지민, 2017; Amoroso et al., 1969)를 보아, 사회비교가 항상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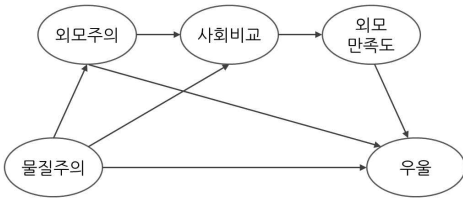
정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와 우울의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연구모형 2, 연구모형3으로 제시하여 물질주의와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세밀하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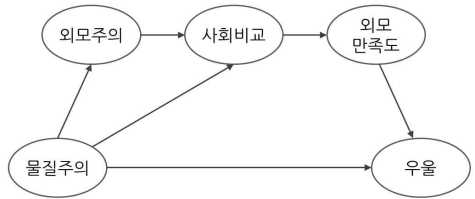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1



[그림 3] 경쟁모형2



[그림 4] 경쟁모형3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위해 연구자가 담당교수에게 접촉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고, 수업시간에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함께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만 응답하게 하였다. 총 53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불성실한 응답 13부를 제외하고 총 524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1.6%(218명), 여성 58.4%(306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3.5세였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15.1%(79명), 2학년 19.5%(102명), 3학년

19.8%(104명), 4학년 45.6%(239명)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사회과학계열이 29.5%(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19.5%(102명), 상경계열 12.6%(66명)이 그 뒤를 이뤘다.

## 2. 측정도구

### 1) 물질주의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 외(1992)가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 MVS)를 유지혜, 설경옥(2018)이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물질주의 가치 척도(Korean version of Material Values Scale : K-MV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공판단(5문항, 예: 물질적으로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소유중심(6문항, 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행복추구(4문항, 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혜 외(201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성공판단 .76, 소유중심 .73, 행복추구 .70, 전체 .87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공판단 .75, 소유중심 .74, 행복추구 .60, 전체 .85로 나타났다.

### 2) 외모주의

본 연구에서는 외모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2010)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외모구조성척도(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SI-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이성관계(7문항, 예: 외모가 매력적이면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다.), 사회적 성취(6문항, 예: 외모가 매력적이면 사회적으로 능력 있어 보인다.), 대인관계(6문항,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의 실수에 좀 더 관대하다.)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외모의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완석 외(2010)의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이성관계 .86, 사회적 성취 .85, 대인관계 .81 전체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91, 사회적 성취 .91, 대인관계 .90, 전체 .94로 나타났다.

### 3) 사회비교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과 관련된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Tiggemann과 McGill(2004)이 개발한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와, Thompson, Heinberg와 Tantleff-Dunn(1991)가 개발한 외모에 대한 비교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를 손은정(2008)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도 외적 요인을 비교하기 위한 척도로 이 두 척도를 통합하여 한 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류애리, 송원영, 2013; 오문영, 2016; 이지연, 김혜원, 2016),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한 변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SACS는 5문항이며, 구체적인 예로 “다른 사람들이 몸에 붙는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비교한다.” 등이 있고, PACS 또한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어떤 사람이 과체중인지 체중미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몸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등이 있다. 한편, SACS척도의 문항 중 한국인 문화에 맞지 않는 문항이나,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문항은 심리학과 교수 1인과 상담심리 전공자 3명이 함께 문항을 수정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 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문지윤(2019)의 연구에서는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 .65, 신체외모에 대한 비교 .84, 전체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 .79,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63, 전체 .83으로 나타났다.

### 4) 외모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 Andrews, Balfour, & Bucholz(1997)이 개발한 신체존중감척도(Body Esteem Scale; BES)를 이정숙(2001)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나는 현재 나의 몸무게가 아주 마음에 든다’ 문항과, ‘나는 현재 내 몸무게에 만족 한다’ 문항의 내용이 유사하여 ‘나는 현재 나의 몸무게가 아주 마음에 든다.’의 문항을 삭제하였고, 최종적으로 22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만족도(예: 나는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을 좋아한다.)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이 필요한 문항들은 역채점 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만족이 높음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신체불만족을 나타낸다. 문지윤(201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 5)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기존의 타당화가 이루어진 우울척도들(예, BDI, SDS, MMPI-D)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어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용이하게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 주간 느꼈던 우울증상에 대한 질문(20문항, 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드물게: 1일 이하(0점)’에서부터 ‘거의 대부분: 5-7일(3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 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외(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기초통계량 확인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1.0의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고, 연구 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고, 측정변수는 각 잠재변인의 하위변인을 사용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하위요인이 없는 척도에 대하여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요인부하량 크기를 고려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고, 3묶음으로 문항 묶음을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후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값 외에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홍세희, 2000), RMSEA는 절대 적합도 지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이며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로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한다.

다섯째,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함께 직접·간접효과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Shrout, Bolger, 2002)을 실시하여 각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AMOS에서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할 경우, 기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론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만 확인할 수 있고, 매개변수 각각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첩된 경로가 존재하기에, 홍세희(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한 후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위해 연구의 원자료(N=524)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Shrout 외(2002)의 제안에 따르면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에는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III. 연구 결과

#### 1. 각 변인 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 분산,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상관계수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자료의 왜도와 첨도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Finch & West, 1997).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상관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r=.40,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물질주의와 사회비교도 상관이 높았다( $r=.35, p<.01$ ). 또한 물질주의와 외모만족도( $r=-.13, p<.01$ )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물질주의와 우울( $r=.21, p<.01$ )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외모주의와 사회비교( $r=.32, p<.01$ )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외모주의와 외모만족도는 ( $r=-.07, p>.05$ )로 유의하지 않았고, 외모주의와 우울은 ( $r=.12, p<.01$ )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어 사회비교는 외모만족도( $r=-.34, p<.01$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사회비교와 우울( $r=.27, p<.01$ ) 또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외모만족도와 우울( $r=-.50, p<.01$ )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 총 5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chi^2$  가 129.019 ( $df=67$ ,  $p<.001$ ), CFI는 .984, TLI는 .979, RMSEA는 .042(90% 신뢰구간 .031~.053)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는 좋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측정모형의 타당함을 보이기 위한 구인 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렴타당도의 경우 절대값 크기가 .70이상이면 타당도가 매우 우수하고, 최소 .40 이상이면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Hair, Tatham, Anderson, & Black, 1998). 본 연구의 측정모형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물질주의 .66~.83, 외모주의 .70~.88, 사회비교 .75~.86, 외모만족도 .75~.89, 우울 .87~.92로 나타나 측정 변인들의 수렴타당도가 적절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별타당도를 위해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최솟값이 .16이고, 최댓값이 .56이므로 잠재변수 간 상관성이 .90이하인 경우 수용가능하다는 기준(Hair et al., 1998)을 충족하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N=524)

물질주의 1	성공 판단	성공 의 주	성공 판단	소유 충심	행복 추구	외모 주의	이성 관계	사회적 성취	대인 관계	사회 비교	신체 비교	신체 외모 비교	외모 만족도	외모 만족1	외모 만족2	외모 만족3	우울 1	우울 2	우울 3					
.86**	1																							
.85**	.56**	1																						
.80**	.62**	.51**	1																					
.40**	.39**	.25**	.39**	1																				
.34**	.34**	.24**	.30**	.82**	1																			
.35**	.34**	.23**	.35**	.89**	.58**	1																		
.34**	.34**	.20**	.35**	.90**	.61**	.73**	1																	
.35**	.33**	.24**	.32**	.32**	.21**	.32**	.32**	1																
.28**	.26**	.20**	.26**	.27**	.16**	.27**	.25**	.93**	1															
.36**	.35**	.25**	.33**	.33**	.23**	.30**	.33**	.89**	.65**	1														
.13**	.10*	.12**	.10*	.07	.02	.06	.10*	.34**	.32**	.30**	1													
.23**	.21**	.18**	.19**	.19**	.13**	.17**	.20**	.35**	.30**	.35**	.87**	1												
.18**	.15**	.16**	.14**	.08	.04	.05	.11*	.38**	.36**	.34**	.90**	.77**	1											
.09*	.06	.11**	.04	.07	.05	.06	.08	.31**	.30**	.26**	.88**	.67**	.67**	1										
.21**	.19**	.17**	.17**	.12**	.06	.10*	.15**	.27**	.23**	.27**	.50**	.49**	.51**	.38**	1									
.21**	.20**	.16**	.18**	.13**	.09*	.10*	.16**	.23**	.20**	.23**	.48**	.47**	.49**	.36**	.94**	1								
.15**	.15**	.12**	.11*	.13**	.06	.10*	.15**	.27**	.23**	.26**	.40**	.39**	.43**	.28**	.91**	.81**	1							
.22**	.19**	.18**	.18**	.11*	.04	.10*	.13**	.25**	.21**	.24**	.45**	.46**	.48**	.37**	.92**	.82**	.78**	1						

\* p<.05, \*\* p<.01

###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자료와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가 129.966 ( $df=69, p<.001$ ), CFI=.985, TLI=.980, RMSEA=.041(90% 신뢰구간 .030~.052)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함을 나타냈다. 이어 경쟁모형 1의 적합도는  $\chi^2$  가 130.009 ( $df=70, p<.001$ ), CFI=.985, TLI=.980, RMSEA=.040(90% 신뢰구간 .029~.051)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함을 나타냈다. 경쟁모형2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가 129.989 ( $df=70, p<.001$ ), CFI=.985, TLI=.980, RMSEA=.040(90% 신뢰구간 .029~.051)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수준임을 나타내었으며, 경쟁모형3의 적합도 또한  $\chi^2$  가 130.052 ( $df=71, p<.001$ ), CFI=.985, TLI=.981, RMSEA=.040(90% 신뢰구간 .029~.051)로 나타나 4가지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의 중 최종모형 도출을 위해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경쟁모형들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의 차이 값은 0.043으로 나타나 경쟁모형1이 연구모형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모형2와 경쟁모형3의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의 차이 값이 0.073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쟁모형3이 경쟁모형2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쟁모형1과 경쟁모형3의  $\chi^2$  검증 결과 차이값이 0.043으로  $\chi^2$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3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chi^2$	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29.966	69	.000	.985	.980	.041 (.030~.052)
경쟁모형1	130.009	70	.000	.985	.980	.040 (.029~.051)
경쟁모형2	129.989	70	.000	.985	.980	.040 (.029~.051)
경쟁모형3	130.052	71	.000	.985	.981	.040 (.029~.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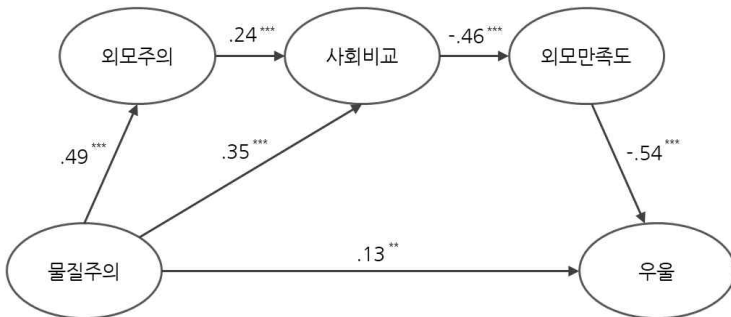
### 4. 최종모형 검증

최종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비표준화 모수 추정치와 표준화 된 모수 추정치, 각 경로계수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표 3>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경로계 수의 유의성을 살펴보았을 때, 물질주의에서 외모주의로 가는 경로( $\beta=.49, p<.001$ ), 물질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beta=.13, p<.01$ ), 외모주의에서 사회비교로 가는 경로( $\beta=.24, p<.001$ ), 사회비교에 서 외모만족도로 가는 경로( $\beta= -.46, p<.001$ ), 외모만족도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beta= -.54, p<.001$ ) 물질주의에서 사회비교로 가는 경로( $\beta=.35, p<.001$ )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3> 최종모형의 구조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표준화 계수
물질주의 → 외모주의	.80	.09	8.73***	.49
외모주의 → 사회비교	.24	.06	3.98***	.24
사회비교 → 외모만족도	-.36	.04	-8.8***	-.46
외모만족도 → 우울	-.54	.04	-11.8***	-.54
물질주의 → 사회비교	.57	.10	5.53***	.35
물질주의 → 우울	.16	.06	2.86**	.13

\*  $p<.05$ , \*\*  $p<.01$ , \*\*\*  $p<.001$



[그림 5] 최종모형

### 5. 매개효과 검증

AMOS에서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할 경우,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만 확인할 수 있고, 매개변수 각각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세희(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최종 다중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해 팬텀변수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래 <표 4>의 개별 간접효과를 보면 물질주의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물질주의가 사회비교와 외모만족도를 거쳐 우울로 가는 매개경로의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1, p<.01, \text{Bias-corrected CI}=.07\sim.11$ ). 이는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사회비교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외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려 우울을 발생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물질주의가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의 경로를 통해 우울로 미치는 영향이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에( $\beta=.04, p<.01, \text{Bias-corrected CI}=.02\sim.07$ ), 이 두 경로 모두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Phantom 변수를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계, 상한계)
물질주의 → 사회비교 → 외모만족도 → 우울	.11** (.07 ~ .17)
물질주의 → 외모주의 → 사회비교 → 외모만족도 → 우울	.04** (.02 ~ .07)

\*  $p<.05$ , \*\*  $p<.01$ , \*\*\*  $p<.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의 역할을 규명하고, 대학생의 우울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지닌 개인이 비싼 물질을 소유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과 관련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는 연구결과(정혜숙, 2016)와 일치하고, 물질주의를 증시하는 개인은 외모와 관련된 가치 또한 증시할 가능성이 높아 외적 드러나는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Felix et al., 201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하는 것에 대해 내적인 욕망 때문만이 아닌, 타인과 비교를 통해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이러한 사회비교가 개인의 외모만족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선행연구결과(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Heinberg & Thompson, 1992; Stormer & Thompson, 1996)와도 일치한다. 또한 홍기원 외(2015)의 대학생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활력감을 나타내고 깊은 우울증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약화시킬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물질주의가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물질주의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의 경로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외모만족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있어 먼저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Burroughs et al., 2002; Kasser et al., 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며, 이와 함께 물질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때, 직접적인 영향보다 매개변인이 존재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Mueller, Mitchell, Peterson, Faber, Steffen, Crosby, & Claes, 2011)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나, 소비를 많이 하는 등의 개인이 사회를 살아가는 식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물질주의 가치관이 외모주의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게 만들어 자신의 외모에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외모만족도를 떨어뜨려 심리적 영역인 우울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질의 소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 물질의 소유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감을 더욱 가중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적 중시뿐만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요소 또한 중시하여 찾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자신의 만족감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소유로 인한 만족감이 들어야할 물질주의가 오히려 낮은 외모만족도를 야기해 우울을 유발하게 된다는 물질주의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셋째, 물질주의는 사회비교, 우울과 상관이 있었고, 물질주의는 사회비교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사회비교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물질주의 가치관이 사회비교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회비교를 하더라도 우울을 유발하진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외모주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사이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외모중심의 가치관을 지녔다고 해서 꼭 우울로 이어지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물질주의가 사회비교와 외모만족도를 이중매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경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는 것만으로도 우울을 유발하게 되지만, 외모중심의 가치관은 꼭 우울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과 외모와 같은 외적 요인



중심의 가치관에는 사회비교와 부정적 외모만족도가 있어 우울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질주의와 외모주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와 외모만족도가 작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비교만으로는 우울을 야기하지 않고, 사회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 외모만족도를 만들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물질주의 성향을 보일 때, 이들이 호소하는 우울감에 외모주의와 사회비교가 있고, 그러한 타인과의 비교하는 관점이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면만 더 크게 비추는 자기 비난적 관점으로 이동되어 외모를 불만족스럽게 하고 더욱 우울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려 주어, 사회비교의 부정적인 역할을 내담자가 알 수 있도록 상담자가 조력하면 좋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물질주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물질주의가 대학생의 우울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물질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비자학이나 언론학에서 집중되어 왔으며,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연구를 보였다. 해외의 연구에서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정적 관계에 여러 연구결과를 나타냈지만(Burroughs et al., 2002; Mueller et al., 2011), 구체적으로 어떤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탐색은 많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련성 관한 연구는 정혜숙(2016)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성향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연구 이외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강한 물질주의 때문(Diener et al., 2010)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 연구는 드물기에, 본 연구를 통해 어떤 변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로로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지 제시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물질주의를 약화시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어려운 취업환경에 놓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인생의 성공을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등의 가치관을 제시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현재는 어려운 취업환경과 맞물려 학생들이 높은 연봉에 대한 열망, 부유함에 대한 선망 등을 갖기 쉬운데, 이에 대한 기저에 교육에서부터 취업의 성패를 나눌 때 연봉중심, 기업 규모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이에 교육적 개입을 통해 지나친 물질이나 돈 중심의 가치관이 오히려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방해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물질적 가치 추구뿐만 아닌 내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즉,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성찰과 개입의 자료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같은 겉으로 탐색 가능한 외적인 부분과, 주 호소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상담적 개입의 자료로 의의가 있다. 접수면접을 포함한 초기 상담 장면은 내담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기에, 이를 토대로 초기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탐색 시, 내담자의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는 물질주의 연구에서 고려될 만한 가치가 있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은 지방 지역의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브랜드나 명품과 같은 요소를 접하기 쉬울 수 있는 환경에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물질주의나 외모주의는 대학생뿐만 청소년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기에, 미디어나 매체를 중심으로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유함과 같은 물질적 가치와 아름다움 등의 외모적 가치를 보고 자라면, 그와 관련한 가치를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재화 할 수 있다(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영향을 나타낸다. 지금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은 새로운 매체의 수용도와 적응도가 빠르며, 그 만큼 시각적인 정보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미디어 매체가 유발하는 심리적 부작용을 중점으로 정신건강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 중심의 사회비교 측정을 위해 외모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외적 요인을 비교할 때 외모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 브랜드 등의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많은 것을 비교하기에, 좀 더 외적으로 풍성한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외적 가치 중시 현상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고, 개인이 가진 걸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타인과 비교를 유발하기가 쉬우므로(Kruglanski & Mayselless, 1990), 한국인에 맞는 외적 요인 비교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김경아(2003). 아동과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만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완석, 권지현, 유연재(2010).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3), 549-568.
- 김완석, 유연재, 권지현(2009). 신체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3), 581-600.
- 김유나(2015).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정혜, 박원모, 권선방(2005). 비만여고생의 신체상만족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폭식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 8(2), 63-80.
- 김정호(2015).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내적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지삼(2014). 청소년 후기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복지상담교육연구**, 3(1), 95-112.
- 김칠순, 박미란(2014). 20-30대 남성의 그루밍 정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의복선택행동, 의복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2), 2014.
- 남궁정은(2012).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와 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류애리, 송원영(2013).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8(2), 345-362.
- 문지윤(2019). 여자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뷰잉(Viewing) 활동이 신체비교 및 신체만족도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정수, 이민규, 신희천(2007). 여대생의 절식 및 폭식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73-91.
- 박정윤(2009). 솔로몬의 행복한 부자론. **로고스경영연구**, 7(2), 137-154.
- 보건복지부(2016).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 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손은정(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송인숙(1991). 물질주의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논집**, 11(1), 91-104.
- 아주경제(2016.1.12). “[취재현장] 외모가 스펙인 대한민국”  
<https://www.ajunews.com/view/20160112084208548>
- 오문영(2016). 고교 유형별 여고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의 관계: 신체비교, 사회비교경향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오혜영(2018).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실태. 국회교육희망포럼.
-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2012).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13(1), 274-283.
- 유지혜, 설경옥(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이미숙(2013). 외모도구성이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75-88.
- 이선혜(2002). 대학생의 정신건강 원조체계 활용 형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36-57.
- 이승연, 박영숙(2008). 여자 고등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신체만족도, 섭식태도,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4), 325-333.
- 이정숙(2001). 중고등학생의 성별, 비만, 타인의 평가와 신체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지연, 김혜원(2016). 여고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비교경향성,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의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253-276.
- 임태순, 임병진(2012). 부자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0(1), 39-56.
- 장은영, 한덕웅(2004).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가 비교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65-89.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용민, 정상훈(2011). 대학생의 지각된 신체상 불일치에 따른 신체불만족과 사회적 체형불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0(5), 423-437.
- 정지민(2017). 고등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통제소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정혜숙(2016). 고등학생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성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천숙희(2012).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3), 223-235.

- 최무진(2009). 금전욕, 마키아벨리즘, 비윤리적 행동의도 관계에 대한 탐색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57-76.
- 홍기원, 김연우(2015). 물질주의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의 실험적 탐색. *로고스경영연구*, 13(1), 1-18.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홍세희(2011).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S&M 리서치 그룹.
- Alicke, M. D., Loschiavo, F. M., Zerbst, J., & Zhang, S. (1997). The person who out performs me is a genius: Maintaining perceived competence in upward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81-789.
- Amoroso, D. M., & Walters, R. H., (1969). Effects of anxiety and socially mediated anxiety reduction on paired-associate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 388-39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02). Materialism and well-Being: A conflicting values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5, 348-370.
- Colunga-Rodríguez, C., Orozco-Solis, M. G., Flores-Villavicencio, M. E., de-la-Roca-Chiapas, J. M., Gómez-Martínez, R., Mercado, A., & Ángel-González, M. (2016). Body image perception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dicators in mexican adolescents. *Psychology*, 7(13), 1671.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Seoul,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ittmar, H. (2009). How do “Body Perfect” ideals in the media have a negative impact on body image and behaviors? Factors and processes related to self and identi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Special Issue: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28(1), 1-8.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Fallon, A. E. & Rozin, P. (1985).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Desirable Body Shap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1), 123-134.

- Fardouly, J., & Vartanian, L. R. (2015). Negative comparisons about one's appeara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usage and body image concerns. *Body Image, 12*, 82–88.
- Felix, R., & Garza, M. R. (2012). Rethinking worldly posses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body appearance for female consumers in an emerging economy. *Psychology & Marketing, 29*(12), 980–994.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Personality, 31*, 439–485.
- Fredrickson, B., & Robert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Froh, J. J., Emmons, R. A., Card, N. A., Bono, G., & Wilson, J. A. (2011). Gratitude and the reduced costs of materialism in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 289–302.
-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kmiller, K. L. (1996). Threat as a determination of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32–39.
- Heinberg, L. J., & Thompson, J. K. (1992). Social comparison: Gender, target importance ratings, and relation to body image disturbanc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2), 335.
- Hendrickse, J., Arpan, L. M., Clayton, R. B., & Ridgway, J. L. (2017). Instagram and college women's body image: investigating the roles of appearance-related comparisons and intrasexual compet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4*, 92–100.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ust, N., Abramson, L. Y., & Alloy, L. B. (2001). Remitted depression studies as tests of the cognitive vulnerability hypotheses of depression onset: A critique and conceptua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 63–83.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137–146.

- Kasser, T., Rosenblum, K. L., Sameroff, A. J., Deci, E. L., Niemiec, C. P., Ryan, R. M., & Hawks, S. (2014). Changes in materialism, chang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and an intervention experiment. *Motivation and Emotion, 38*(1), 1–22.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ostanski, M. & Gullone, E. (1998). Adolescent body image dissatisfaction: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xiety, and depression controlling for body ma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9*(2), 266–262.
- Kruglanski, A. W., & Mayseless, O. (1990). Classic and current social comparison research: Expanding the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08*(2), 195–208.
- Kulik, J. A., & Gump, B. B. (1997). Affective reactions to social comparison: The effects of relative performance and related attributes information about another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5), 452–468.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
- Marsh, H. W., & Parker, J. W. (1984). Determinants of student self-concept: Is it better to be a relatively large fish in a small pond even if you don't learn to swim as we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1), 213–231.
- Mendelson, B. K., Mendelson, M. J., Andrews, J., Balfour, L., & Bucholz, A. (1997). Three aspects of body esteem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ifferential relations with weight and self-esteem.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7*(1), 145–160.
- Morse, S., & Ger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48–156.
- Mueller, A., Mitchell, J. E., Peterson, L. A., Faber, R. J., Steffen, K. J. Crosby, R. D., & Claes, L. (2011). Depression, materialism, and excessive Internet use in relation to compulsive buying. *Comprehensive Psychiatry, 52*(4), 420–42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htz, D. R., Sirgy, M. J., & Meadow, H. L. (1988). Elderly life satisfaction and television viewership: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1), 141–145.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hrout, P.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tormer, S. M., & Thompson, J. K. (1996). Explanations of body image disturbance: A test of maturational status, negative verbal commentary, social comparison, and sociocultural hypothe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9(2), 193-202.
- Sturman, E. D., Mongrain, M., & Kohn, P. M. (2006). Attributional style as a predictor of hopelessness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20(4), 447-458.
- Taylor, L. G., & Shelley, E. (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5), 708-722.
- Thompson, J. K., Heinberg, L. J., & Tantleff-Dunn, S. (1991). The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PACS). *Behavior Therapist*, 14, 174.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23-44.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Wheeler, L., Martin, R., & Suls, J. (1997). The proxy model of social comparison for self-assessment of a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 54-61.

\* 논문접수 2019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9월 9일 / 2차 심사 2019년 12월 3일 / 게재승인 2019년 12월 4일

\* 최병성: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grace\_ly@naver.com

\* 이지연: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becoming@incheon.ac.kr



## Abstract

## A Structural Analysis of Materialism, Lookism, Social Comparis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Choi, Byeong-seop\*\*

Lee, Jee-yon\*\*\*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college students' depressi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predicted that values based on pervasive materialism in Korea would contribute to cause of depression. The present study was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lookism, social comparis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24 college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materialism was affirmatively correlated with lookism, social comparison, and depression while showing negative correlation with appearance satisfaction. Second, materialism had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 by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order of lookism, social comparis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Materialism also affected social comparison, dual mediating appearance satisfaction to cause depression. Negative effect of materialism in Korea wa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al approach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was necessary on the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n closing, the limitations and the follow-up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Materialism, Lookism, Social Comparison, Appearance Satisfaction, Depression

\* This work was the revision and quoted of the author's Master dissertation.

\*\* First Author, Master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